◈ 3강: 하이데거 vs 메를로 퐁티
: 마음이란 무엇인가? ◈

바람 때문에 사찰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이를 두고 두 승려가 논쟁을 벌였다. 한 승려는 깃발이 펄럭인다고 하고, 다른 승려는 바람이 펄럭인다고 했다. 둘의 논쟁이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자 육조 혜능이 이렇게 말했다. "바람이 펄럭이는 것도, 깃발이 펄럭이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펄럭이고 있을 뿐이다." 두 승려는 이 말에 깜짝 놀랐다.

-무문(無門), 『무문관(無門關)』

1. 마음은 아무 때나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 [우리는] 가까이 손 안에 있는 존재자를 '배려함'에서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다시 말해]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만나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 도구는 파손된 것으로 판명되고 재료는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다. 도구는 여기에서도 어쨌거나 손 안에 있는 것이기는 하다. (...) 이런 사용 불가능성의 발견에서 도구는 마침내 우리 '눈에 띄게' 되는 것이다.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

▶ 하이데거에 따르면 세계-내-존재로서 인간은 이미 사물들과 '배려함'을 통해서 관계하고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아침에 회사나 학교에 들러 우리는 별다른 생각이 없이 컴퓨터를 부팅한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없이 컴퓨터가 켜진다. 이런 컴퓨터와 나 사이의 친숙한 관계가 바로 하이데거가 말한 '배려함'의 관계 혹은 '손 안에 있는' 관계이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컴퓨터를 의식적으로 지향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하이데거가 강조하고 싶었던 점이다. 이미 너무 친숙한 세계 속에서 사물들과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물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지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단지 하이데거는 지향성이 특수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다. 가령 오늘 어제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부팅했지만 컴퓨터가 켜지지 않았다고 해보자. 바로 이런 사태를 하이데거는 "가까이 손 안에 있는 존재자를 '배려함'에서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만나게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바로 친숙하게 사용하던 사물이나 도구가 사용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마침내 우리 '눈에 띄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야 비로소 마음의 지향성이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이데거의 근본적 통찰은 마음의 지향성이 어느 경우에나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한된 경우에만 발

생한다는 데 있었다. 익숙하게 사용하던 도구들이 망가질 때처럼 사물들과의 친숙한 관계가 와해되었을 때에만, 다시 말해 친숙한 사물들이 낯선 사물이 되었을 때에만 우리는 그 사물들을 의식적으로 지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으로 사물들과 친숙한 관계에 있는 인간, 즉 '세계-내-존재'로서의 인간은 사물들을 지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하이데거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될 수 있겠다. '세계-내-존재'로서의 인간은 평상시 사물들을 지향하지 않고 배려할 뿐이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지향할 때에는 사물들에 대한 배려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뿐이다.

2. 신체 경험이 없다면 우리의 의식은 불가능하다.

◈ 심장이 유기체 안에 있는 것처럼 고유한 신체는 세계 안에 있다. 그것은 시각적 광경을 살아있게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생명을 불어넣으며, 내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그것과 더불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한다. 내가 나의 아파트를 걸어 다닐 때, 그 아파트가 나에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여러 가지 국면들이 제각각 여기서 또는 저기서 보인 아파트를 표상한다는 것을 내가 모른다면, 나 자신의 운동을 내가 의식하지 않고 나의 신체를 그 운동의 단계들을 통해서 동일한 것으로 내가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 국면들은 동일한 사물의 다양한 측면들로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나는 그 아파트를 생각으로 훑어볼 수도 있고 상상할 수도 있으며 또는 종이 위에 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라고 해도 나는 신체적 경험의 매개가 없다면 대상의 통일성을 파악할 수 없다.
-『지각의 현상학(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 우리는 어떤 아파트를 의식적으로 지향할 수 있다. 이때 나는 아파트를 단순한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인 것으로 지각한다. 심지어 "나는 그 아파트를 생각으로 훑어볼 수도 있고 상상할 수도 있으며 또는 종이 위에 그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의식적 지향이 가능한 이유는 신체적 경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메를로-퐁티가 주목했던 것은 바로 이 점이다. 나의 신체는 동쪽에서 아파트를 보고, 서쪽에 아파트를 보고, 남쪽에서 아파트를 보고, 북쪽에서 아파트를 볼 수 있다. 심지어 나의 신체는 아파트 바로 밑에서 아파트를 올려다보는 등 다양한 위치에서 아파트를 바라보기도 한다. 이런 신체적 경험이 거듭 쌓였을 때에만, 우리의 의식은 하나의 아파트를 통일된 입체로서 지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아파트 남쪽에서 그 아파트를 지향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입체로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양한 신체 경험들이 종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